

씨티씨바이오, Co-Evolution Network LLC와 CBD 사업 MOU체결

- ▶ 필름형 CBD를 글로벌 사업화 초석으로 삼을 것
- ▶ 한국도 이르면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·수입 허용할 예정
- ▶ 전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은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

<2022-11-29>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(주)씨티씨바이오(대표이사 이민구)는 일본소재 기업인 “코에볼루션네트워크엘엘씨(Co-Evolution Network LLC)”와 칸나비디올(cannabidiol, 이하 CBD) 구강용해필름(Oral Dissolving Film, 이하 ODF)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.

국내 최초로 구강용해필름 제조 기술을 개발한 제약사인 씨티씨바이오는 Co-Evolution Network LLC(이하 CoNet LLC)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 회사측은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그 후 개발한 제품을 공급할 예정으로, CoNet LLC 는 이를 통해 일본시장 개척 및 씨티씨바이오가 지정하는 국가에 유통을 수행하게 된다.

씨티씨바이오가 기술개발 이후 유통하게 될 제품은 CBD 를 함유하는 ODF 로 회사는 ODF 제제기술을 적용해 'CBD 를 함유하는 구강내 속봉해 제제(ODF)'에 대한 국내에는 특허출원을 이미 완료했으며, 해외에도 특허 출원중이다. 오일 형태의 CBD 를 구강용해필름에 적용할 경우 생체이용률이 높아지므로 편의성과 더불어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.

2020 년 12 월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. 이어 일본, 캐나다, 미국 등 56 개 국가에선 CBD 성분이 든 의약품을 합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. 특히 전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은 연평균 22.1% 씩 커지고 있으며 2024 년 51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특히 일본은 '대마취체법' 규제로 인해 원료 생산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일본산 재료를 통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제품이 큰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.

회사는 지난 2017 년부터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'경북 산업용 헴프(Hemp) 규제자유특구'에서 CBD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.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. 특히 환각 효과가 없는 CBD는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고 통증, 희귀성, 난치성 치료를 위해 쓰이며 대표적으로 소아뇌전증, 치매, 파킨슨병에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.

씨티씨바이오 김영덕 사장은 “글로벌 기업 중 필름형 CBD 연구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씨티씨바이오가 유일할 것”이라며 “본 MOU 는 CBD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전했다.



한편 CoNet LLC 는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일본의 포트만 로드 제이피(주)의 공동 출자로 올해 7 월 설립됐다. 한국과 일본 간의 우수한 기술, 제품, 서비스 등의 상호 수출입 및 판매를 진행하며 생태 순환 및 환경 지속 가능성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.